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2. 9.(일) 총 8매(본문 4)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진후, 정재원, 서형우 ·☎ (044) 201-3848, 3934, 385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자	·실장 홍윤석, 팀장 조성우, 조광상 ·☎ (031) 369-0400, 0431, 0211	
보도일시		2018년 12월 10일(월)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 ‘케이-시티’ 완성

**세계 최초 5G 통신망·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 재현
10일부터 민간·학계·새싹기업 모두 개방·자율주행차 기술 선도 기대**

< ‘케이-시티’ 준공 >

-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가 완성됐다. 케이-시티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케이-시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정렬 제2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기업·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준공식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기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 12대가 '케이-시티'를 주행하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 자동주차 및 원격호출·출차, 무단횡단 보행자 인식·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감속, 교통신호 인식,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통과 등 11가지 기술

-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210조 원, 2035년 1천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빠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요 선진국도 자율주행차 시험장 구축·운영 중(미국 M-City, 일본 J-Town 등)

- 이에 국토교통부는 약 125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로 구축했다.

* 여의도 면적(2.9km², 87만평)의 1/8 수준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목표로,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실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5가지의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 35종의 실험시설 구축: ①고속도로(요금소·나들목 등), ②도심(신호교차로·횡단보도·건물 등), ③교외(터널·가로수·철도건널목 등), ④주차장(평행/수직주차면, 주차빌딩 경사면 등), ⑤커뮤니티(어린이보호구역 등)

-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하여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가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상황을 공유하여 센서 한계를 극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방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월 ‘케이-시티’를 착공한 후 1년 4개월 만에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했다.

○ 오늘부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케이-시티’의 모든 환경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은 주말 무료사용도 가능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통해 사용신청 · 예약

<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비전 선포 >

□ 올해 3월, 국토교통부 등*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융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현재 188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 공동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현대자동차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SKT 사장, 이씨스 대표이사

○ 협의회는 ‘케이-시티’ 준공식에 앞서, “자율협력주행 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이 우리에게도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협의회는 발족 이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미팅(3회),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 또한 자율협력주행(C-ITS*) 통신단말기 · 기지국 등 장비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제 합동성능시험(2회)을 개최하고, 관련 표준도 마련했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차 등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이러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회원사를 중심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 협의회 회원사도 발족 당시 84개社에서 현재 188개社로 2배 이상 증가, 특히 중소기업이 38개社에서 103개社로 대폭 증가

○ 협의회 내 중견·중소기업은 올해 당초 계획 대비 51% 증가한 300여명을 신규채용했으며, 147% 증가한 801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했다.

○ 특히, ‘아이티텔레콤’은 미국 계측기 회사에 통신시험 장비를 공급 (70만 달러 규모)하고, ‘PLK테크’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수출(300만 달러 규모)하는 등 해외진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C-ITS 장비에 대한 한·미 상호인증도 추진 중('18.11월 1차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자율주행차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교통체증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케이-시티’ 인접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케이-시티’ 남측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조성, 총 37만㎡ : (1단계) '19년 3만㎡ → (2단계) '20년 11만㎡ → (3단계) '21년 23만㎡

○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자율협력주행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 044-201-3848, 케이시티) 또는 정재원 사무관(☎ 044-201-3934, 협의회)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18. 12. 10(월), 13:30~16:00

* 13:30~14:10 :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 / 15:00~16:00 : ‘케이-시티’ 준공식

○ (장소) ‘케이-시티’* 내부 행사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 (참석)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이원욱, 경기도 행정부시장,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T, KT, 삼성전자, LG전자 등 400여명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전 선포식 (제2차관)	13:30~13:45	- 개회 및 축사
	13:45~14:00	- 활동성과 및 계획 발표
	14:00~14:10	- 산업발전 비전 선포
< 장 내 정 리 >		
‘케이-시티’ 준공식 (국무총리)	15:00~15:10	자율주행 기술 전시관 관람
	15:10~15:32	개회 및 축사, 미래비전 발표
	15:32~15:40	제막식 및 세레모니
	15:40~16:00	자율주행차 시승·시연

참고 3 준공식 후 자율주행 기술 시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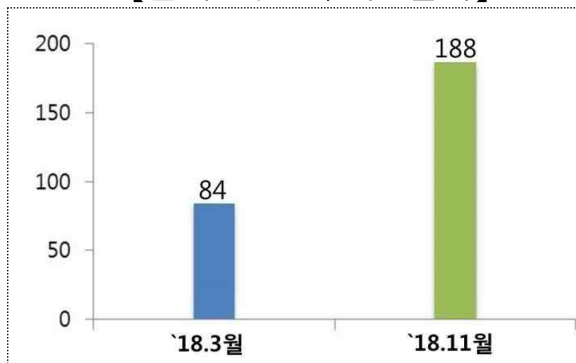
참고 4

2018년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종합성과

- (양적 성장) 11월말, 회원사는 188개로 발족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38개社에서 103개社로 크게 증가

* (당초) 대기업 16, 중견기업 4, 중소기업 38, 외국기업 4, 연구원 5, 대학 6, 공공기관 등 11
(현재) 대기업 19,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03, 외국기업 10, 연구원 6, 대학 17, 공공기관 등 21

【전체 회원사 수 변화】



【규모·분류별 변화】



- (고용 확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등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 대비 51% 증가한 298명을 신규채용(~'18.11)

○ 하기 투자액을 일자리로 환산 시 537명 고용창출효과(취업계수 6.7)

- (투자 확대) 올해 투자계획 대비 147% 증가한 801억원을 자체투자, 일부 기업들의 경우 60억원 이상 외부투자도 유치(~'18.11)

【'18년 신규채용 증가(명)】



【'18년 내외부투자 증가(억원)】

